

최종편집 : 2021-10-12 08:50 (화)

로그인 회원가입 BBS불교방송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세검색

f t y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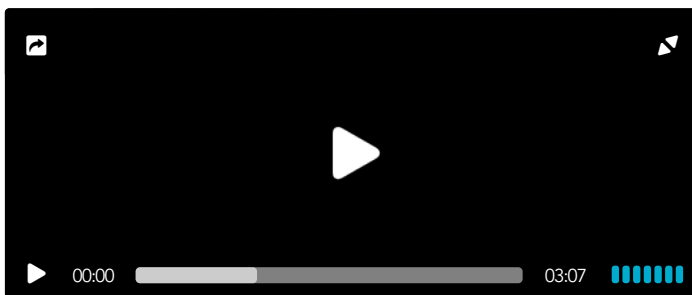
전체 경제 정치 사회 문화·스포츠 불교 국제 전국 | BBS 인터뷰 BBS 칼럼 BBS 취재수첩 BBS PLAZA 인사/부고



홈 > 불교

60년 만에 나뉜 송광사 괘불...사부대중 염원 모은다

진재훈 기자 | 입력 2021.09.30 09:55 | 수정 2021.10.01 07:09 | 댓글 0



영상이 뜨지 않는 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앵커

승보종찰 송광사에서는 천리순례 입재와 함께 60년 만에 초대형 괘불이 공개됐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발원하고 사부대중의 천리 순례 원만 회향을 염원하며 괘불재가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광주BBS 진재훈 기잡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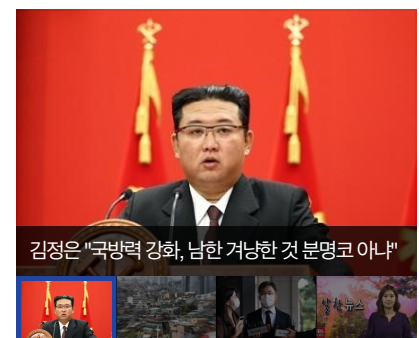


기자

최신뉴스

- 정치 | 김정은 "국방력 강화, 남한 겨냥한 것 분명코 아냐"
- 경제 | 주가·생활고 때문에 퇴직연금 중도인출 급증...최...
- 경제 | 2020년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 18조...최근 3년세...
- 사회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14시간 조사...혐의 부인
- TV 알찬뉴스 | [BBS 알찬뉴스] 10월 12일(화)

포토뉴스



인기뉴스

- 국민의힘, 오늘 광주에서 첫 TV토론...5,18묘역 참배도
- 김경진 특보 "이재명 축하하지만, 후보 확정되지 않은"
- [뉴스파노라마 한글날특집] 김무봉 명예교수 "첫 한글날"
- 민주당 송영길 대표 "이재명 후보 확정"...국민의힘 첫 합
- 천태종 평택 법장사 신축법당 낙성...“경기 남부권 최고

괘불을 대웅전 앞마당으로 모시는 이운의식이 시작되고

괘불함을 든 학인스님들이 괘불대로 향합니다.



괘불이 하늘을 향해 오르고...

시리도록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거대한 탕화가 서서히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로 6.3미터, 세로 10.6미터로 아파트 4층 높이에 이릅니다.

사부대중의 얼굴에는 환희심이 가득합니다.

6 천년고찰 봉은사에 올려퍼진
치유와 희망의 노래



7 이재명 후보 확정에도 이낙
연 의의제기, 3차 국민선거인



8 불교스카우트, 창계사서 '나
혼자 산다'로 심신 수련



BBS 칼럼

- 전경윤의 '세상살아' NEW
- 전영신의 '사산'
- 신두식의 '공감노트'
- 배재수의 '크로키'
- 이현구의 '스윗 스팟'
- 선임기자 칼럼

월 1만원 이상, 방송포교후원 공덕주 모임

만공회

가입문의 **1855-3000**

ARS 후원 **060-800-8000**
(한 통화 5천원)



본존을 기준으로 좌측 아래에는 관세음보살이 우측에는 대세지보살이 장병과 연꽃을 쥐고 있는 형상.

1961년 일섭스님 등 13명의 화원들이 그린 대작으로 화려한 채색이 인상적입니다.





[인서트]현봉스님 /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여기 동참하신 모든 불자님들께서 다생겁의 지업이 모두 소멸되시고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 팬더믹에서 벗어나 모두가 평상의 생활로 돌아가서 열심히 정진하여 지혜와 복덕이 구축한 삶을 살면서 모든 분들의 소원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인서트]자공스님 / 조계총림 송광사 주지

(“그 어렵던 시절에 그렇게 태어난 괘불이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대웅전 앞에서 괘불을 모시고 5일간 야단법석을 열게 되었습니다.”)

[인서트]경우스님 / 조계종 제19교구본사 선운사 주지

(“이 괘불재가 코로나19로 힘든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송광사 괘불은 지난 60년간 단 한번도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장엄한 광경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불자와 참배객들이 송광사를 찾아 산사음악회도 함께 했습니다.



[인서트] 임숙희 / 전남 여주시

(“괘불을 보는 순간 하늘과 대웅전, 부처님의 모습이 너무 너무 감격스럽고 좋았습니다.”)

닷새간 이어지는 괘불제는 때맞춰 송광사에서 시작된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108 천리순례의 원만 회향과 코로나19 종식을 발원하는 의미도 담았습니다.



1961년 송광사 괘불 점안법회 당시 모습

고통 받는 일체 중생을 위해 나뉜신 대형 부처님.

경외로운 그 모습 만큼이나 크나 큰 자비가 초가를 산사를 가득 메웠습니다.

BBS뉴스 진재훈입니다.



진재훈 기자 365life@naver.com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1



반대
0

홍영표(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사퇴 후보 무효...
이낙연 전 대표 "결선투표 필요, 대장동 의혹에 대한...
故 이유빈 아버지 "애가 생전에 마지막 남긴 말이 '아빠...'
'백신 접종' 숨진 대불련 제주교대생 49재
[코로나19] 경남, 1일 신규확진 44명...거리두기 3단계...
[교육기획기] "선생님! 고맙습니다"...경기 화성 남양고
[코로나19] 서울 노원구 병원 관련 28명 확진...병원-...

홍영표(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사
퇴 후보 무효표 처리 재고 필요...당 지도부

기사댓글 0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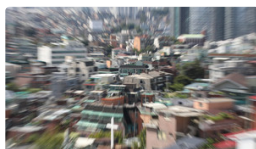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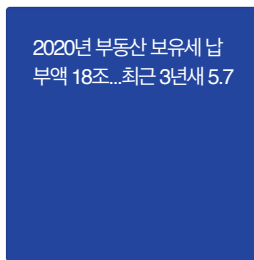
주요기사



김정은 "국방력 강화, 남한
겨냥한 것 분명코 아냐"



주거·생활고 때문에 퇴직연
금 중도인출 급증...최근 4



2020년 부동산 보유세 납
부액 18조...최근 3년새 5.7



화천대유 대주주 김민배
14시간 조사...혐의 부인



[BBS 알찬뉴스] 10월 12
일(화)



10/12(화) BBS TV 뉴스
전체 영상

BBS NEWS

매체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저작권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BBS불교방송(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다보빌딩) | 대표전화 : 02-705-5114 | 팩스 : 02-705-5229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재수

제호 : BBS NEWS | 등록번호 : 서울 아 01259 | 등록일 : 2010-06-03 | 발행일 : 2001-09-01

발행인 : 박형수(종하) | 편집인 : 전경윤

BBS NEWS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BBS 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bsi.co.kr

POWERED BY **NCS**